

# 한국어 어휘형성과정의 어휘론적, 제약적 접근<sup>1)</sup>

김 종 복

## 1. 들어가는 말

교착적(agglutinative) 형태론(morphology)과 함께, 접사화(affixiation)를 어휘형성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는 복잡한 파생과정(derivational process)과 굴절과정(inflexional process)을 보여 주고 있다. 지금까지 명사화 접사와 동사 접사에 대한 견해로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제시되어 왔다. 첫째는, 접미사들이 핵어 이동(head movement)과 같은 통사적 작용에 의해서 통사부에서 어간이나 어미들과 결합한다는 '통사적 견해(syntactic view)'이다 (Ahn and Yoon 1989, Jung 1991, Yoon and Yoon 1990 among others).<sup>2)</sup> 또 다른 주된 견해는 단어들은 단순히 어휘부에서만 형성된다는 '어휘론적 견해(lexicalist view)'이다. 본고는 한국어의 어휘형성 과정을 어휘론적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2절에서는 전통적인 주형적 관점(templatic view)에서 한국어 동사 굴절 현상의 기본적인 속성을 살펴본다. 여기서 한국어의 동사 접사들의 어순이 문 요소들의 자유로운 어순과는 달리 엄격한 순서 제약을 가지고 있으며, 공기계약(co-occurrence restrictions) 뿐만 아니라 배타적 속성 또한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 본다. 또한 이러한 속성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주형적 관점이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알아 본다. 이들 문제점을 알아 본 후, 본고는 한국어의 복잡한 어휘형성과정의 올바른 기술을 위해서는 주형 내에서의 접사들 사이의 순서관계와 같은 단순 제약보다 더 강력한 제약을 가진 형태적 원리나 규칙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3절에서는 2절에서 도출한 결론에 따라 선언적 제약들에 기반한 핵어중심구구조문법(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을 한국어 어휘형성과정의 기술을 위해 도입한다. 특히 유형구조(sort hierarchy)의 개념이 자질구조 개념과 결합하여 어떻게 한국어의 어휘 형성 과정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는 지를 보여 준다.

1) 경희대학교 문리과대학 영어영문학과.

2) 이들 대부분의 연구들은, 한국어의 통사적 구조를 영어나 불어의 통사 구조와 유사하게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들 대부분의 분석은 한국어의 동사 굴절현상들이 통사부에서 기능 범주인 AgrP, TP, MP 같은 범주의 머리자리를 차지한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본고에선 이러한 통사적인 주장에 대한 반대 입장인 어휘론적 입장을 취한다. 즉 핵어이동(head movement)이라는 통사적 관점보다는 '어휘보존가설'을 준수하는 어휘론적 분석방법을 받아들인다.

## 2. 한국어 동사굴절의 기본속성

### 2.1. 범주 비변환 접사 (Category Non-Changing Suffixes)

#### 2.1.1 기본 동사 굴절 접사 (Basic Verb Inflectional Suffixes)

한국어는 접사 첨가를 어휘형성 과정에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완전히 굴절된 동사는 의무적 접사와 선택적 접사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접사들이 어간(stem)이나 어근(root)에 자유스럽게 첨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순서를 지킨다.

(1) V-root + (Pass/Caus) + (Hon) + (Tense) + Mood

(1)의 주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동이나 사역, 존칭, 시제, 범을 나타내는 접사들이 엄격한 순서를 지키고 있다. (2)는 이들 접사들의 종류들을 제시하고 있다.

(2) a. Passive: -이, -히, -리, -기

b. Causative: -이, -히, -리, -기, -추, -구

c. Honorific: -시/으시

d. Tense: -었/았, -는, ...

e. Mood: -다, -까, -어라, -시오다, -자, -습니다, -습니까, 등등

형태론적으로, 범(mood) 접사를 선행하는 굴절 접사들은 수의적이지만, 한 동사가 통사부에서 일어 나기 위해서는 범 접사와 반드시 굴절되어야 한다. 범 접사와 굴절되지 않은 동사는 어떠한 통사적 환경에서도 일어 날 수 없다는 관점에서 동사의 어근과 범 접사는 상호 결속(bound)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3) a. 책을 읽 + 었 + 다.

b. \*책을 읽 + 었.

또한 (1)에 주어진 주형(template)으로 부터 예상할 수 있듯이, 굴절접사들은 서로가 엄격한 순서를 지키고 있다.

(4) a. \*잡 + 았 + 시 + 다

b. \*잡 + 다 + 았.

이러한 엄격한 순서에 대한 규칙이외에도, 어떠한 접사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는 제약도 가지고 있다.

- (5) a. \*잡 + 았 + 다 + 다.
- b. \*잡 + 으시 + 시 + 었 + 다.

(1)에 주어진 주형은 굴절 접사들의 순서나 결합 가능성들을 포착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는 다음과 같은 비정형적인 결합도 허용한다는 사실이다.

- (6) a. 가 + (\*시) + (\*있) + 자
- b. 가 + (\*시) + (\*있) + 라

제안의 법 굴절접사인 '-자'와 명령 굴절접사인 '-라'들은 존칭접사나 시제접사들과 결합할 수 없다. 이들 접사들은 이러한 접사들이 없는 어간이나 어근들과 결합할 수 있다. 이는 '-자'나 '-라'와 같은 접사는 (1)에서 접사 위치에 놓여진다는 제약 이외에 이들 자신의 공기제약(co-occurrence restriction)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또한 주형 (1) 단독으로서는 접사들의 모든 결합 가능성을 포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2.1.2 보문자 접사 (Complementizers)

1.1에서 살펴본 기본적 동사굴절접사들 이외에 소위 보문자 접사들이 존재한다. 이들 접사들은 주절의 주동사에 첨가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복합 동사구(verb-complex)에서 지배되는 동사(governed verb)와 결합한다.

- (7) a. 먹 + 어 보다
- b. 먹 + 지 않았다.

이러한 소위 보문자 접사들은 이들이 결합하는 어간 (stem)에 따라서, 네가지 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다.

- (8) a. COMP1: -아/-어
- b. COMP2: -지, -게, -고
- c. COMP3: -어야, -나
- d. COMP4: -고

이들 보문자 접사들의 결합 역시 몇몇 제약을 준수한다. 첫째는 이들 접사들은 서로 배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두 개의 보문자가 같이 발생할 수 없다.

- (9) a. \*읽 + 어 + 지
- b. \*읽 + 어야 + 어

또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 보문자들은 결합할 수 있는 어간의 종류가 제한되어 있다.

- (10) a. COMP1: 읽 + (\*으시) + 어  
 b. COMP2: 읽 + 으시 + (\*었) + 지  
 c. COMP3: 읽 + 으시 + 었 +(\*다) + 어야  
 d. COMP4: 읽 +으시 + 었 + \*(다) +고

여기서 우리는 보문자 접사들의 분포와 상호 발생에 대한 엄격한 제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COMP1은 존칭접사를 배제한 어간과 결합하며, COMP2는 시제 그리고 COMP3는 법 접사를 제외한 어간과 결합한다. 또한 COMP4 접사는 법 접사와 굴절된 동사와 결합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공기제약을 주형적 관점 (templatic view)에서 보았을 때, 각개의 보문자들을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형이 필요하다.

- (11) a. W-root + (Pass/Caus) + COMP1  
 b. W-root + (Pass/Caus) + (Hon) + COMP2  
 c. W-root + (Pass/Caus) + (Hon)+ (Tense) + COMP3  
 d. W-root + (Pass/Caus) + (Hon)+ (Tense) + Mood + COMP4

이러한 각 보문자 접사들이 갖고 있는 엄격한 공기제약들은 우리가 단순히 주형 (1)과 같은 체계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왜냐하면 (1)과 같은 주형은 (12)와 유사한 많은 비정형의 형태적 결합을 가져 오기 때문이다.

- (12) \*읽 + 으시 + 지 + 다.

COMP2 접사인 '-지'를 단지 비시제 어간과 결합하기 때문에 (1)에서 Tense 위치에 놓을 수 있지만, 이는 (12)와 같이 법 접사를 다시 첨가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모든 보문자들은 상호 함께 일어 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한 주형 안에 모두 위치시킬 수도 없다. 우리는 여기서 또다시, 단순한 주형적 분석 방법에서는 왜 보문자 접사 뒤에는 다른 굴절 접사들이 일어 날 수 없는지, 왜 하나 이상의 보문자 접사들이 같이 일어 날 수 없는지에 대한 공기제약과 상호배타성을 설명해야만 한다는 난제에 봉착하게 된다.

### 2.1.3 관형 수식 접사 (Prenominal modifiers)

동사어간에 첨가되지만 범주를 변환시키지 않는 관형 수식 접사들(prenominal modifying suffixes)이 있다. 즉 '-는, -은, -를, 던'과 같은 관형 수식 접사들로 굴절된 동사들은 관형절에서만 일어 난다.

## (13) 톱이 읽-은 책

이들 관형 수식 접사들은 시제 정보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이들 접사들이 시제를 포함한 어간 (stem)과 결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법 접사로 굴절된 어간과도 함께 일어 날 수 없다.

- (14) a. \*읽 + 었 + 은 책  
b. \*읽 + 었 + 다 +는 책

이러한 사실들은 관형 수식·접사들이 (1)과 같은 주형에서 시제 위치에 올 수 없고 이들 위치에 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 접사들의 발생 환경을 포착하기 위해 (15)와 같은 주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 (15) V-root + (Pass/Caus) + (Hon) + PM-suffixes

'\*읽+어+은'에서 같이 보문자 접사들이 관형 접사들과 함께 발생할 수 없다는 사실로부터, 관형접사들이 단순히 COMP2 위치를 차지한다고 가정할 수 있지만 이는 (16)b와 같은 비정형의 형태적 결합을 초래할 수 있다.

- (16) a. 읽 + 어 + 만 보았다.  
b. 읽 + 은 + (\*만) 책

(16)이 보여 주는 것은 한정접사(delimiter suffixes)들은 보문자접사로 굴절된 동사와 결합할 수 있지만 관형접사들은 이들과 결합할 수 없다는 것이다. (16)b와 같은 비정형을 설명하기 위해선 주형적 접근에서는 한정접사들은 관형접사로 굴절된 어간과 함께 일어 날 수 없다는 부정적 제약(negative constraint)이 필요하다.

## 2.2 범주 변환 접사(Category-Changing Suffixes): 문 명사화소(Sentential Nominalizers)

지금까지 보아온 동사의 굴절 접사와 달리 범주를 변화시키는 접사들이 있다. 예를 들어 '-음' 과 '-기'와 같은 명사화 굴절 (inflection) 혹은 파생 (derivation) 접사는 동사어간에 첨가되어 새로운 명사화 어간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접사들은 첨가되는 형태 어간에 특정 제약을 가하지 않는 생산적(productive)인 어휘 형성 과정이다.

한국어에서는 크게 '-이, 개, 기'와 같은 어휘 명사화소(lexical nominalizers)와 '-음, -기'와 같은 비어휘 혹은 문 명사화소 (sentential nominalizer)로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어휘 명사화소는 하나의 단어와 같이 행동한다는 증거는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내부구조가 뒤섞기 될 수 없다는 사실, 부사와 같은 요소가 개입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격 표시나 굴절접사들이 내부구조에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 등으로부터 어휘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보 + 기'의 의미가 '어떤 보는 행동'이 아니라 '예'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에서 어휘적 명사소와의 결합의 결과는 의미가 합성성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f. Yoon 1991, Kim 1992).

- (17) a. 보기, 내기, 달리기, 던지기, 등등  
b. 가르침, 다짐, 그림, 기쁨, 게으름, 등등

이에 반해, 비어휘적 명사소인 '-음' '-기'는 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함께 일어나는 어간에 대한 제약이 없으며, 전체 의미는 부분에서부터 알 수 있는 합성성의 원리를 지키며, 또한 내부구조들이 뒤섞기, 조용관계, 부사의 삽입과 같은 통사적 현상에 투명(transparent)하다.

- (18) a. 우리는 [철수가 학교에 가+었]+음+을 알+았+다.  
b. [남자가 여자를 진정으로 사랑하+기+가 어렵다.

(18)에서 명사소 '-음'과 '-기'는 시제어간과 어근과 각각 결합하여, 문장 전체를 명사화시키고 있다.

이들 비어휘적 명사소들의 형태론적 행동을 좀더 살펴보기로 하자. 어휘적 명사소들이 어간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과는 달리<sup>3)</sup>, 비어휘적 명사소는 이러한 제약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 비어휘적 명사소의 생산성과 위치는 이들 명사소를 굴절접사로 취급하는 동기를 부여하였으며, (19)와 같은 주형을 가정하였다.

- (19) V-root + (Pass/C면) + (Hon) + (Tense) + Nmlz (Nominalizer)

(19)의 주형에서 보듯이, 비어휘적 명사소들은 법 접사가 아니라 시제 접사어휘의 위치에 온다.

- (20) \*읽 + 으시 + 었 + 다 + 음

이들 명사소들은 보문자 접사나 관형접사들과도 함께 발생할 수 없다.

- (21) a. \*읽 + 어 + 음  
b. \*읽 + 은 + 음

3) 예를 들면, 어휘 명사소 '-기'는 \*예쁘기, \*푸르기에서와 같이 상태동사(stative verb)와는 결합할 수 없다.

또한 일반적인 동사 어간과 같이 존칭이나 시제 접사들의 존재에 제약을 가하지 않는다.

(22) 읽 + (으시) + (었) + 음

이러한 (21)과 (22)에서 대조는 보문자 접사와 달리 굴절 명사화소 '-음'은 문장의 종결을 의미하는 범 접사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명사화소들을 단순히 범 접사 위치에 놓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명사화 접사이후 한정접사나 격조사는 일어 날 수 있지만, 보문자 접사인 COMP4와 같은 접사는 일어 날 수 없기 때문이다.

(23) \*잡 + 으시 + 었 + 음 + 고

그러나 명사화 접사이후 더 이상의 동사 굴절이 발생할 수 없다. 명사화소들의 이러한 엄격한 공기제약과 위치는 범(mood)접사들이나, 보문자 접사 그리고 관형 접사들을 위한 주형들 이외에 또 다른 주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 2.3. 범주 중립 접사 (Category-Neutral Suffixes)

지금까지 살펴본 접사들 (범주 변환 혹은 비변환 접사) 모두 결합하는 어간의 범주 정보에 대한 제약을 가지고 있다. 이들 접사이외에도 어간의 범주의 형태적 정보에 대한 제약을 가하지 않는 한정접사(delimiters)와 같은 접사들이 있다.

- (24) a. 잘 + 만  
b. 먹 + 어 + 만  
c. 남자 + 만

(24)에서 보듯이, '-만'과 같은 한정접사는 부사, 동사, 혹은 명사 어간에 첨가될 수 있다.

한정접사는 일어 나는 위치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Yang 1972, Ahn 1988).

- (25) a. X-delimiter: -만, -까지, -조차, -마저, 등등  
b. Y-delimiter: -은/는, -도, -이라도, 등등

이들 접사 역시 엄격한 순서를 지키고 있으며, 주형으로 나타내면 (26)과 같다.

(26) V-stem + X-delimiter + Y-delimiter

이러한 순서에 대한 제약은 다음과 같은 결합을 허용하지 않는다.

- (27) a. \*먹 + 어 + 은 + 만
- b. \*먹 + 어 + 라도 + 만

한정접사들은 선택적 접사들이므로 이들의 존재는 동사나 동사 어간의 정형성 (well-formedness)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28) 먹 + 어 + (만) 보았다.

피상적으로 보았을 때, 한정접사들이 모든 동사 어간과 결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29)와 같은 자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 (29) a. \*읽 + 으시 + 만
- b. \*읽 + 었 + 만
- c. \*읽 + 었 + 다 + 만
- d. \*읽 + 으시 + 었 + 다 + 만

또한 한정접사들은 관형접사로 굴절된 동사와 결합할 수도 없다.

(30) \*사랑하 + 는 + 만 사람

한정사가 결합할 수 있는 동사 어간은 반드시 보문자접사로 굴절된 어간이어야 한다.

- (31) a. 읽 + 지 + 만 읽었다.
- b. 잡 + 아 + 만 보았다.

지금까지 한정사 역시 엄격한 순서제약과 공기제약을 가지고 있음을 보았다. 이러한 속성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접사들을 주형 내에 단순히 위치시키는 단순한 주형적 분석 방법은 부과적인 제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보여 주고 있다.

## 2.4 굴절 접사들의 기본 속성의 문제점

한국어에 있어서 동사가 완전화 되기 위해서; 즉 통사부에서 사용되어 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범 접사나, 보문자 접사, 혹은 관형 수식 접사에 의해서 굴절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았다. 또한 동사의 굴절접사들이 자유롭게 배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서로 엄격하게 순서 제약을 준수한다는 사실 또한 관찰하였다. 또 다른 중요한 속성은 접사들이 서로 배타적이라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관형 수식 접사 후에 더 이상의 동사 굴절이 일어 날 수 없다는 것, 관형 수식 접사들은 보문자 접사나 범 접사들과 함께 일어 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두 개의 보문자는 함께 일어 날 수 없다는 사실들을 보아 왔다.

주형적 접근 방식을 도입한 출발점은 접사들 사이의 순서와 이들의 결합 가능성을 포착하기 위한 것이었다 (Y.S. Kim 1985). 그러나 우리가 보아 온 것처럼, 순수한 주형적 분석 방법은 접사들의 결합 가능성(combinatory possibilities)을 포착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 개의 주형을 필요로 한다. 또한 엄격한 공기계약과 상호 배타성을 설명하기 위해선 특별한 하위범주화에 대한 제약도 필요로 한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다양하고 복잡한 주형들보다도, 단지 간단한 하나의 도구로서 이러한 속성들을 설명할 수 있다면, 한국어 어휘형성과정을 훨씬 더 간단하고 명확하게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공기계약이나 순서계약들을 매번 기술하거나, 여러 주형들을 필요할 때마다 설정할 수는 없다. 이는 문법 기술에 있어서 잉여성(redundancy)을 가져 온다. 예를 들어 '-어라'와 '-자'와 같은 접사들은 범 접사 (Mood) 위치에 함께 놓여 지지만, 이들이 단지 동사어근(root)과만 결합할 수 있다는 선택계약(selectional restriction)을 갖고 있다. 이러한 선택계약들 그 자체만으로도 '-어라'나 '-자'의 위치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이 주형 내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정보는 잉여적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잉여성을 제거할 수 있는 제약기반(constraint-based)적 접근을 제시하고자 한다.

### 3. 어휘론적, 제약기반적 분석(A Lexicalist, Constraint-Based Approach)

어휘형성과정이 통사부에서 일어난다는 통사적 관점과는 달리 어휘적 관점은 접사들이 어휘 부에서만 존재하며, 통사부의 원리와 다른 독립적인 원리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받아 들인다. 이와 같은 어휘적 관점은 통사부가 단어의 내부구조를 변경 조작할 수도 없으며 내부구조를 볼 수도 없다는 어휘보존가설(Lexical Integrity Principle)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어휘론적 관점에서 문제는 어휘정보를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어휘구조를 형식화하느냐에 있다.

이 절에서는 어떻게 이러한 문제점들이 Pollard and Sag (1987, 1994: henceforth P&S)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개발된 핵어중심구조문법(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에서 취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한다. 자질구조(feature structure)를 언어학적 매체의 모형으로 받아 들이는 핵어중심구조문법에서, P&S는 어휘형성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유형조직(sort hierarchy)과 어휘규칙(lexical rules)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발전시켰다.<sup>4)</sup> 본고에서는 P&S

4) P&S(1987)에서 어휘생성과정에서의 잉여성을 수직잉여성(vertical redundancy)과 수평잉여성(horizontal redundancy)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는 각 어휘항목에 품사, 하위범주화 등을 기술함으로써 발생하는 잉여성이며, 후자는 일련의 굴절과 파생과정에서와 같이 어휘들이 재 발

(1987)의 이 두 가지 개념중 유형조직의 개념만 받아 들여 한국어의 어휘형성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개념이 한국어의 어휘형성과정 뿐만 아니라, 동사굴절 접사들의 결합 가능성, 공기제약, 그리고 베타성들을 어떻게 일반성 있게 설명할 수 있는지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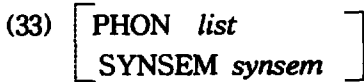
### 3.1. 유형의 개념과 형태론의 자질구조

#### 3.1.1. 유형과 유형구조

형식화된 자질구조를 이용하는 HPSG에서 자질구조들은 유형(sort)화 되어 있다. 모든 유형들은 부분적으로 순서화(partially ordered)되어 있으며, 유형구조내에 속해 있다. 예를 들어 기본적인 언어적 유형은 *sign*인데, 이 유형은 *root*, *morph-sign*, *word* 그리고 *phrase*로 선언적으로 분할되어 있다.



*sign* 유형이 *word*와 *phrase* 두 유형으로 구분하는 P&S(1987)와는 달리, 본고는 *morph-sign*과 *root*를 또 다른 하부유형으로 정의한다. *morph-sign*은 어휘적 내부구조를 가지고 있는 형태론적 대상물이며, 유형 *root*는 기본적인 어휘단위이다. 이와 같은 유형에 대한 선언(declarations)이외에도, 유형체계를 문법적으로 형식화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선언이 필요하다. 이는 모든 자질구조들이 정형의 유형(well-typed)이어야 한다는 적절성의 조건(appropriate condition)이다. 이는 한 유형이 어떤 종류의 자질구조를 가질 수 있느냐를 정의해 주는 조건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건은 각각의 정형의 유형이 정의된 자질구조만을 취하도록 해 준다. 예를 들어 유형 *sign*은 다음과 같은 자질 구조를 갖도록 선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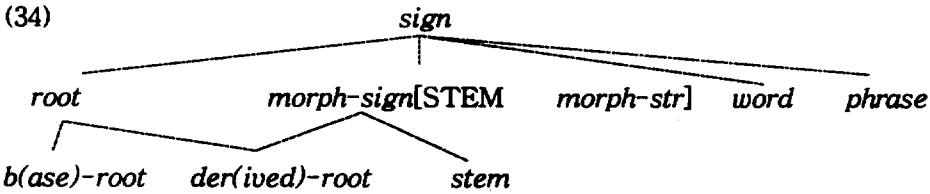


이러한 유형구조(sort hierarchy)와 자질구조의 선언(feature declarations)은 한 유형이 상위유형의 속성들을 상속한다는 것을 예언해 준다. 예를 들어 유형 *morph-sign*은 *sign*의 하위유형이므로, *sign*이 갖고 있는 모든 제약들을 상속한다. 이는 *morph-sign*은 자신의 상위유형 제약들을 자기자신이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어휘형성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잉여성(수직과 수평잉여성)을 제거해주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우리는 필요한 정보만, 즉 상위 구조로부터 예측할 수 없는

생함으로써 발생하는 잉여성을 의미한다.

정보만 기록하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좀더 세밀한 유형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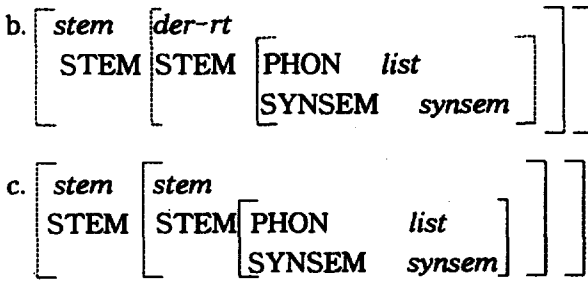
(34)에서 볼 수 있듯이, 유형 *root*는 *b-root*와 *der-root*로, 유형 *morph-sign*은, *der-root*와 *stem* 유형들로 구분화 되어있다. *b-root*는 굴절이나 파생에서도 더 이상 분석될 수 없는 기본적인 어휘 엔트리이며, 내부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 *der-root*는 교차유형(*cross-classified*)화 되어 있다. 즉 이 유형은 *root*의 하위유형이면서 동시에 *morph-sign*의 하위유형인데, 이는 유형 *der-root*의 형태소들은 굴절접사의 속성과 파생접사의 속성 모두를 가지고 있는 이중성을 반영한다. 이 유형에 속하는 형태소들은 동사 굴절현상을 한 동사어간과 유사하면서 내부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비록 동사 굴절현상을 하지만, 하위범주화 정보와 의미 정보를 변환시킨다는 점에서 파생접사로 구분된다. 또 다른 *morph-sign*의 하위 유형은 *stem*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형태소들은 수동접미사나 사동화접미사 과정이 아닌 여타의 동사 접미사 과정 즉 존칭, 시제, 혹은 범접미사와 과정을 거친 동사 어간들이다.

또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유형 *morph-sign*이 STEM을 자기 자신의 자질 속성을 가진 것으로 선언되어 있다. 이는 자신의 상위유형인 *sign*으로부터 PHON과 SYNSEM 값도 상속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der-root*와 *stem* 유형은 적절성 조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STEM의 값으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된다.

- (50) a. *der root*[STEM *b-root*]  
 b. *stem*[STEM *root V stem*]

*der-root*의 STEM 값은 *b-root*로 제약되며, *stem*의 STEM 값은 *root* 혹은 *stem*으로 제약된다. 이는 정의된 유형구조의 따라 *stem*의 값이 *b-root* 혹은 *der-root*, 혹은 *stem*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제약들은 다음과 같은 자질구조를 허용한다.

- (51) a.  $\left[ \begin{array}{l} stem \\ STEM \end{array} \left[ \begin{array}{l} b-root \\ PHON \quad list \\ SYNSEM \quad synsem \end{array} \right] \right]$



이러한 각 유형에 대한 자질구조의 선언은 다음과 같은 형태소들의 결합을 가능하게 한다.

- (52) a. stem[b-root[워] + 어]  
 b. stem[der-root[워+히] + 었]  
 c. stem[stem[워 + 히 + 었] +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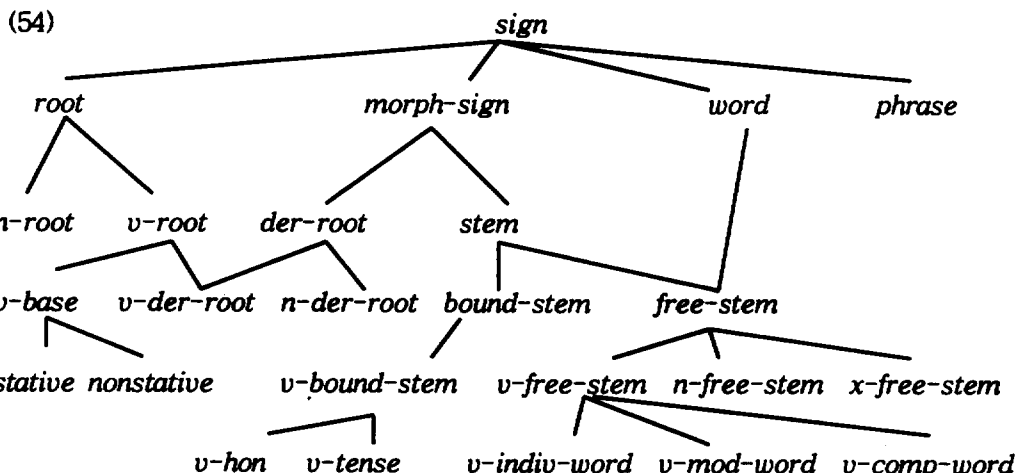
여기서 언급해야 할 것은 속성 AFFIX에 관한 것이다. Riehemann (1922)나 Bird and Klein (1993)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접사들이 문법적 개체(grammatical objects)로 존재해야 한다는 강력한 증거는 없다. 비록 접미사들이 형태적 핵어(morphological heads)로서 하위범주화나 통사범주와 같은 하위범주화 정보를 가진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Sells (1991)에서 주장된 바와 같이 특히 한국어에서는 접미사가 핵어라는 증거는 없다. 더욱이 유형구조와 자질구조의 선언과 같은 메커니즘은 만약 접미사들이 단순히 부분적인 정보만 가지는 개체들로 취급되었을 때 보다 간결하고 명확한 어휘형성과정에 대한 이론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 (cf. Riehemann 1992, Bird and Klein 1993). 이러한 개념을 받아들여, 본고에서는 AFFIX가 형태 음운적 값인 PHON 속성을 값으로 갖는 것으로 선언된다.<sup>5)</sup>

- (53) [AFFIX affix[PHON list]]

### 3.2 한국어의 유형 구조

앞에서 구축한 유형구조에 근본하여 아래와 같은 보다 상세한 유형구조를 설정할 수 있다.

5) AFFIX 속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 또한 존재한다. 예를 들어 AFFIX 값의 구현이 특정 함수에 의해서 구현된다고 보는 분석 방법이 있을 수 있다. Kathol (1991) 참조.



이 유형구조를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하자.

먼저 *v-root*는 *v-base*와 *v-der-root*로 분류화 되고, *v-der-root*는 *der-root*의 하위유형이기도 하다. *v-base*는 기본적인 형태소이며, 형용사적인 요소들을 위한 *stative*와 동사적 요소들을 위한 *nonstative*로 하위분류화된다. *der-root*는 *v-der-root*와 *n-der-root*로 하위분류화되며, 파생과정을 거친 형태소들이 이 유형에 속한다. 예를 들어 수동화 혹은 사동화 굴절화된 형태소들이 이 유형에 속한다.

둘째, 유형 *stem*은 먼저 *bound-stem*과 *v-free-stem*으로 하위분류화된다. 유형 *stem*에 속하는 형태소들은 법 접사나 보문소들로 굴절화되어야 하는 형태소들을 의미한다. 그러나 *free-stem*에 속하는 형태소들은 자유형태소들로서 더 이상의 굴절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이 유형에 속하는 유형들로서는 *v-free-stem*, *n-free-stem* 그리고 *x-free-stem*들로 구분되어 있다. *v-free-stem* 유형은 다시 *v-indiv-word*, *v-comp-word*, 그리고 *v-mod-word*로 하위분류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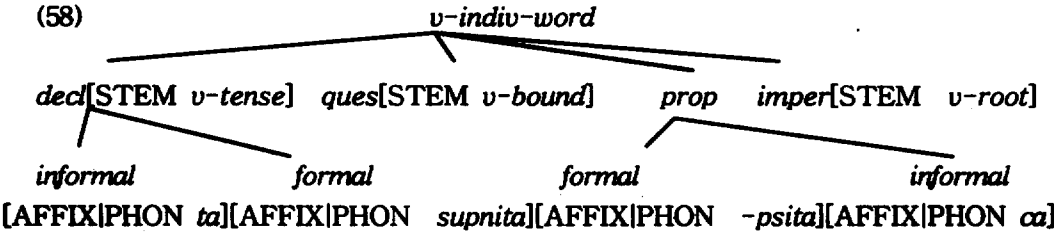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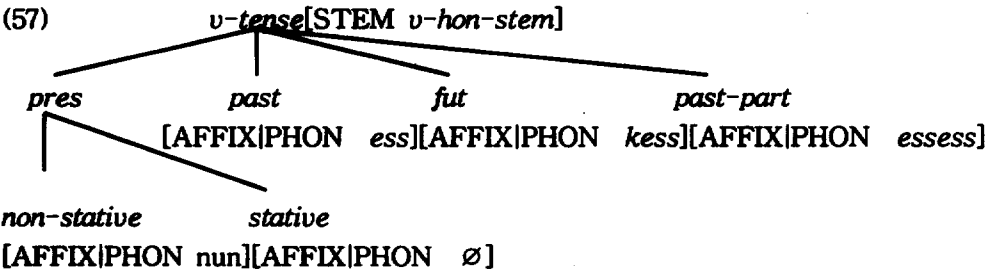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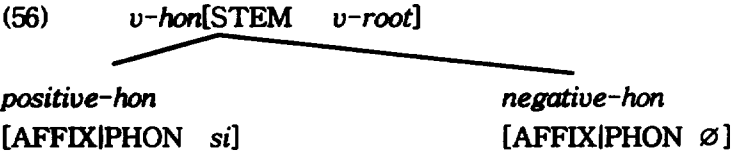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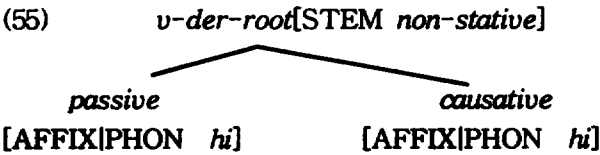
*v-indiv-word*는 법 접사로 굴절된 형태소들을 의미하며, *v-comp-word*에는 보문소들로 굴절된 형태소들이 속하며, 그리고 *v-mod-word*에는 관형접미사들로 굴절화된 형태소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한 어간이나 어미가 완성되어 통사부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법 접사나, 관형접사, 혹은 보문접사들로 굴절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주목할만한 또 다른 사실은 유형 *free-stem*이 유형 *word*와 교차분류화(*cross-classified*)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이 유형에 속하는 모든 형태소들이 자유형태소들이라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즉 비자유형태소인 *bound-stem*들은 통사부에서 일어 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어진 유형구조는 한국어에 있어서 어휘형성과정의 기본적 속성들을 포착하고 있다. 1장에서 살펴 본 동사 접미사들은 세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첫째는 어간(*stem*)과 결합하여 또 다른 복잡한 어간을 형성하지만 완전한 단어(*word*)를 형성하지 못하는 존칭 접사나 시제 접사들이며, 둘째는 어간과 결합하여 단어를 형성하는 법 접사, 보문소 접사와 관형접사와 같은 접사들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어들과

결합하여 또 다른 유형의 단어들을 형성하는 한정사와 같은 접사들이었다. (54)에 주어진 유형구조는 이러한 세 가지 유형들의 접사들을 체계적이고 명백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

3.3. 동사 유형들에 대한 제약과 분류

동사 접사들 사이에 존재하는 보다 엄격한 순서제약과 공기제약 그리고 결합 가능성들을 포착하기 위하여, (54)에서 주어진 유형구조를 좀더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그럼 여기서 이들 유형구조를 좀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55)에 주어진 *root*와 *morph-sign*의 하위유형인 *v-der-root*는 *passive*와 *causative*로 구분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v-der-root*의 STEM 값은 *non-stative*로 선언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 선언은 하위유형들인 *passive*와 *causative*유형들에게 상속됨으로, (59)와 같은 비정형의 형태소를 생성을 저지할 수 있다.

- (59) a. \*출+ 히  
b. \*좋 + 히

어근 '출다'와 '좋다'는 유형 *stative*에 속하기 때문에 *passive*와 *causative*의 STEM 값으로 사용될 수 없다.

유사한 방법으로 유형 *v-hon*은 *positive-hon*과 *negative-hon*으로 하위분류화되어 있다. 또한 유형 *v-tense*는 *present*, *past*, *future* 그리고 *past-participle* 하위 유형들로 구분되어 있다. 유형 *present*는 다시 *stative-pres*와 *non-stative-pres*로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유형화는 상접사(*aspect suffix*)로 불리는 '-는'과 같은 접사는 *non-stative* 동사와만 결합한다는 사실을 포착하기 위한 것이다.

- (60) a. 먹 + 는 + 다  
b. 크 + (\*는) +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8)위 부분유형구조는 유형 *v-indiv-word*가 *declarative*, *question*, *propositive*, 그리고 *imperative* 하위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다른 유형과는 달리 이들 유형들은 자신들의 STEM값에 대한 상세한 선언들을 가지고 있다. 이는 몇몇 범접사들이 특정 공기제약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하기 위해 필요하다.

- (61) a. \*[먹 + 었] + 라  
b. \*[먹 + 으시 + 었] + 자

유형 *imper*는 [STEM *v-root*]라는 자질구조를 가진다는 제약은 접미사 '-라'가 시제 어간 '먹 + 었'과 결합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접미사 '-자'가 일어 날 수 있는 환경은 STEM의 값이 유형 *v-root*의 구성원이어야 하기 때문에 (61b)는 비정형이 된다.

이러한 유형구조들이 어떻게 접미사들 사이의 순서를 결정하는 지 살펴보자.

- (62) a. [[잡 + 았] + 시] + 다  
b. \*[[잡 + 으시] + 다] + 었  
c. \*[[[잡 + 으시] + 으시] + 었] + 다  
d. \*[[[잡 + 으시] + 었] + 다] + 다

(62)의 비정형은 접미사들의 순서 위반이나 허용되지 않는 반복에서 기인 한 것이다. (62a)는 존칭접사가 *v-tense*어간과 결합하였기 때문에 비정형이며, (62b)는 과거접사가 *declarative v-indiv-word*와 결합하였기 때문에 비정형이며, (62c)는 두 번째 존칭 접사가 *v-root*가 아니라 *v-hon* 어간과 결합하기 때문에 비정형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3d)에서는 법 접사 '-다'가 *decl-v-indiv-word* 어간과 결합하기 때문에 비정형 이 된다.

유형구조의 주된 개념은 각각의 유형들이 상위유형들로부터의 상속이던 아니면 자기 자신이 가진 제약이던, 자기 자신의 자질구조의 대한 선언(declaration)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언적 정의는 지금까지 보아온 것과 같이 접사들의 순서와 공기 제약들을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물론 언뜻 보기에는 각 특정 유형에 주어진 STEM과 AFFIX에 주어진 제약들이 각각의 접사들에 엄격한 하위범주화정보를 부여하는 것과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유형구조 방법에서는 각 유형에 대한 공기 제약을 매번 진술하지 않는다. 공기제약에 대한 규칙성과 불규칙성을 각각 여과시키고 필요한 최소 정보만 등록한다. 예를 들어 *v-tense-stem*에 몇몇의 하위유형들이 있지만 STEM 값에 대한 제약은 자기 자신만 갖고 있다. 이러한 제약은 유형구조의 상속의 속성으로 인하여 하위유형들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각 접미사들이 각각의 하위범주화나 공기제약을 갖고 있는 이론에서는 공통적으로 공유되는 정보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피할 수 없으며 이는 일반성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공통된 정보를 공유한 형태소들이 구분화되어 있고 정보들이 상속되는 유형구조에 입각한 이론에서는 공통점이 분류되어,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지역 유형에만 나타내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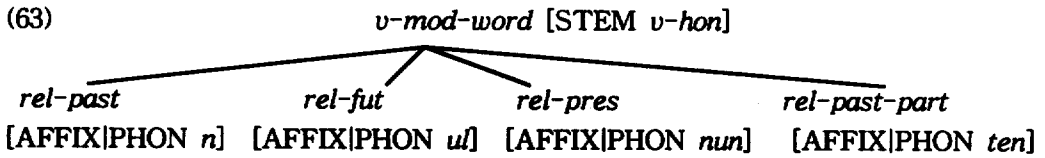
### 3.3. *free-stem*에 속하는 유형들

유형 *free-stem*은 *stem*과 *word*의 하위유형으로서 *v-free-stem*, *n-free-stem*, 그리고 *v-free stem*을 하위유형으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v-free-stem*은 다시 *v-indiv-word*, *v-mod-word*, *v-comp-word*로 다시 나누어 지는데 앞절에서 *v-indiv-word*에 관해서 알아 보았다. 이장에서는 나머지 두 유형들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 3.3.1 관형 수식 접사(Prenominal Modifier Suffixes)

관형 수식 접사들은 자유어간이며 그리고 *v-mod-word* 유형의 구성소라고 정의됨을 보아왔다. 이 유형은 다시 각각의 관형 접사들이 갖고 있는 시제정보에 따라 다시 네 가지의 하위유형으로 분리될 수 있다.





위의 유형구조에서 알 수 있듯이 STEM 값에 대한 제약은 상위유형 *v-mod-word*에 만 주어 져있다. 이는 이 유형에 속하는 형태소들의 공통성을 포착하고 있다. 그러나 AFFIX 값에 대한 제약은 각각의 하위유형들이 다른 값을 갖고 있다. 이러한 유형구조는 무엇보다도 (64)에 자료들을 설명해 준다.

- (64) a. [읽 + 으시] + 을 (책)  
 b. \*[읽 + 으시 + 었] + 은 (책)  
 c. \*[읽 + 었 + 다] + 는 (책)

(64a)는 관형 접사 '-을'이 *v-hon* 어간과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정형의 형태소이지만, (64b)와 (64c)는 비정형이다. *v-mod-word*의 STEM 값은 유형 *v-hon*에 속하여 하지만 전자에서는 *v-tense* 어간이고, 후자에서는 *decl-v-indiv-word*이다.

이러한 분석은 또한 왜 관형 접사들이 재귀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지도 설명해준다.

- (65) a. \*[읽 + 은] + 던  
 b. \*[읽 + 던] + 을

*v-mod-word*의 STEM 값은 그 자신이 될 수 없다는 제약으로 인하여 (65a,b) 모두 비정형으로 판명된다.

또한 관형 접사 이후의 더 이상의 굴절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도 설명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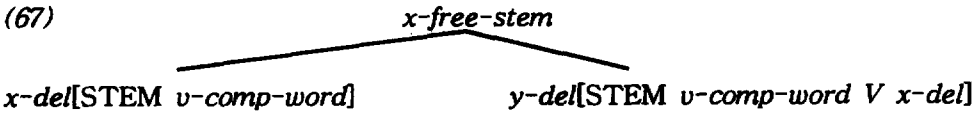
- (66) a. \*[읽 + 는] + 다 (책)  
 b. \*[읽 + 는] + 고 (책)  
 c. \*[읽 + 는] + 만 (책)

(66)의 모든 형태들이 비정형 형태소들인데 이들은 본고의 분석에서 전혀 생성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v-mod-word* 값의 STEM 값에 대한 제약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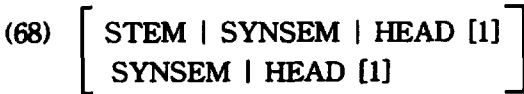
### 3.3.2 한정 접사 (Delimiters)

1장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범주중립적인 한정 접사들은 순서 제약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관찰하였다. (67)의 유형구조는 이러한 사실들을 반영한다.



언급한 바와 같이, 어떠한 범주의 어간도 한정 접사와 결합할 수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규칙성은 *x-free-stem*의 속성이며, 아래의 자질구조로 나타내어 질 수 있다.



이 일반적인 제약은 한정 접사가 결합하는 STEM의 핵어 값은 결과 값의 핵어 값과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핵어 값인 범주정보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간이 부사이면, 한정사와 결합하였을 때에도 부사의 형태소를 생성해 낸다. 이러한 간단한 제약은 *x-free-stem*에 속하는 유형들이 범주 중립적 (category-neutral) 접사라는 사실을 설명해 준다.

(67)에 유형구조를 다시 살펴보자. *x-del*와 *y-del*가 자신들의 STEM 값에 대한 제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약들은 이들 한정 접사들의 순서 제약을 설명해 준다.

- (69) a. \*[[먹+ 어] + 는] + 만  
 b. \*[[먹 + 어] + 이라도] + 만  
 c. [[[읽 + 지] + 는]

한정 접사 '-만'이 *y-del* 어간과 결합한 (69a,b)는 비정형이지만, (69c)와 같이 STEM의 값이 *v-comp-word*인 경우는 정형의 형태소가 된다.

또한 이러한 분석은 (75)의 비정형구조의 생성을 막아 준다.

- (70) a. \*[읽 + 었] + 만  
 b. \* [읽 + 었] + 다 + 는

이들 모두 STEM의 값이 유형 *v-tense*인데, 이는 한정 접사가 취할 수 있는 STEM 값에 대한 제약을 위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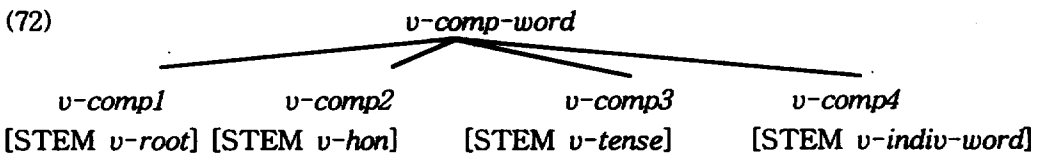
하위유형 *x-free-stem*에 주어진 STEM 값에 대한 제약은 또한 왜 한정 접사들이 단지 보무접사와 굴절된 유형들과만 결합하는지 설명해 준다.

- (71) a. \*[읽 + 은] + 만  
 b. \*[읽 + 어] + 만

비록 한정 접사가 모든 범주의 어간과 결합할 수 있는 범주 중립적 접사이지만, 모든 동사어간과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합하는 어간은 반드시 *word* 유형이어야 하며, 보문 접사와 굴절된 동사어간이어야만 한다. 이러한 제약들은 본고에서 제시한 유형구조에 근본한 제약적 분석방법이 명쾌히 설명하여 준다.

### 3.3.3 보문 접사(Complementizers)

이장에선 보문 접사들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자. 1장에서 본 바와 같이 보문 접사들은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어간의 종류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들 보문자들은 동사어간을 하나의 *word*로 만들며, 엄격한 공기제약을 지키고 있음을 보았다. 유형구조 (72)는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유형 *v-comp-word*는 네 가지 하위유형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 STEM 값과 AFFIX 값에 대한 각각의 제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약은 비정형의 *v-comp-word*의 생성을 방지한다.

- (73) a. \*[잡 + 앓] + 아 (보다)  
 b. \*[잡 + 앓] + 지 (않았다)

(73a)의 비정형성은 유형 *v-comp1*의 STEM 값은 *v-root*이어야 한다는 (77)의 제약을 위반한데서 기인하며, (73b)의 비정형성 또한 *v-comp2*의 STEM 값은 *v-hon*이라는 제약을 위반한데서 기인한다.

### 3.3.4 비어휘 명사화소 (sentential nominalizers)

1장에서 비어휘 명사화소 혹은 문 명사화소에는 '-음'과 '-기'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 두 명사화소는 의미적 차이점을 갖고 있다. 전자는 일반적으로 '사실성'을 그리고 후자는 '비사실성'의 명사화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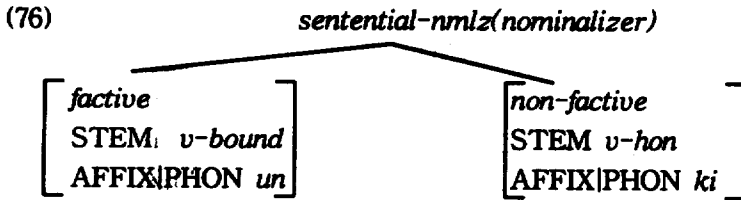
- (74) a. 철수는 [그녀가 떠났-\*기/음]을 후회한다.  
 b. 철수는 그녀가 떠나 + (\*앓) + 기/\*음]를 기다리었다.

위 예문에서 보듯이, 형태론적으로는 '-음'은 시제어간과 일어날 수 있지만, '-기'는 그렇지 않다. 또한 전자는 사실적 문 보어를 요구하는 서술어와 함께 쓰일 수 있지만,

후자는 비사실적 보어와만 함께 쓰인다. 또한 후자와 달리 전자는 범 접사와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

- (75) a. 그가 집을 떠나+었+음.
- b. 그가 떠나기.

(76)의 유형구조는 이러한 차이점들을 반영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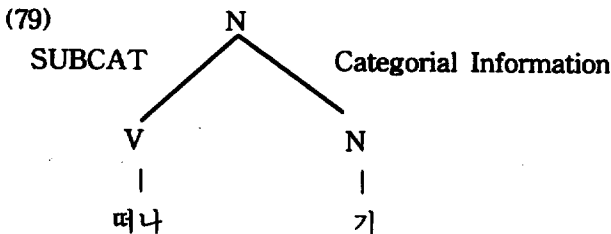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위유형들에 있어서 STEM 값에 대한 제약들이다. 유형 *factive*의 STEM 값은 유형 *v-bound*이어야 하며, *nonfactive* 유형의 STEM 값은 *v-hon* 유형이어야 함이 선언되어 있다. 이러한 선언적 제약들은 아래의 (77)과 (78)의 자료들을 설명해 준다.

- (77) a. [읽 + (으시) + 었] + 음
- b. \*[읽 + 으시 + 었 + 다] + 음

- (78) a. \*[읽 + 었] + 기 + 톨
- b. [읽] + 기 + 톨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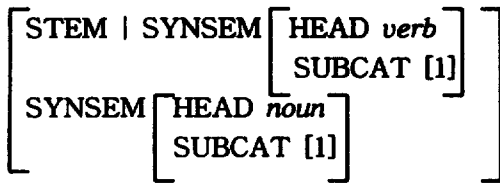
(77a)에선 '-음'이 *v-bound*의 하위 유형인 *tense-stem*과 결합하기 때문에 정형이지만, (77b)에서는 명사소가 *v-indiv-word*와 결합하기 때문에 비정형이다. 같은 맥락에서, (78a)는 STEM 값이 *v-bound*이어야 한다는 제약을 위반하기 때문에 비정형의 형태소로 판명된다.

문 명사화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점은 정보의 흐름에 있다.



(79)에서 보듯이, 하위범주화정보인 SUBCAT 은 왼쪽 요소에서 오지만, 범주정보는 오른쪽의 명사화소에서 상속된다. 이러한 정보의 흐름은 형태부의 원리와 통사부의 원리가 유사하다고 받아들이는 분석 (cf. Krieger and Nerbonne 1991)에 다소 문제점을 가져온다. 일반적으로 접사들이 모든 하위범주화정보 뿐만 아니라, 핵어자질 등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문명사화과정에서는 (79)에서 알 수 있듯 하위정보화 정보와 핵어자질 정보의 상충된 상속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상충적 정보의 흐름은 여기서 제시된 방법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본고에서 제시된 방법에서는 접사들은 더 이상 핵어 역할을 하지 않는다.

(80) 유형 *sentential-nmlz*에 대한 제약



(80)에서 주어진 제약은 유형 *sentential-nmlz*은 STEM 의 범주정보가 *noun*에서 *verb*로 전환된다고 선언되어 있다. 또한 이 제약은 STEM 값의 하위범주화 정보가 명사화된 결과적 요소로 전이된다는 것이 선언되어 있다. 이러한 어휘적 명시는 정보의 흐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피하면서, 정보의 흐름을 올바르게 기술할 수 있다.

4. 맺는 말

본고에서는 먼저 한국어 형태소의 기본적 속성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전통적인 주형적 접근 (*templatic view*)가 접사들 사이의 순서제약이나, 공기제약등을 포착하기에는 많은 부파적인 규정이 필요하며 또한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본고의 후반부에는 어휘보존가설에 기반한 핵어중심구구조문법에서 한국어 어휘형성과정에 대한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다. 한국어의 동사 접미사들의 형태적 행동들을 포착하기 위해 이른 중립적 관점에서 필요한 유형 (*sort*)의 개념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개념 위에서 세워진 유형구조는 핵어중심구구조문법의 자질제약과 선언과 같은 개념과 결합하여 한국어의 접미사들의 다양한 특성과 행동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접미사들의 순서, 공기제약, 그리고 결합가능성등 이외에도, 어휘정보의 잉여성 또한 최소로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 참고문헌

- Anh, Sang-Cheol. 1989. On the Derivation of Causative/Passive in Korean. In *A Festschrift for Prof. Hey-Sook Lee*. Seoul. Hansin Publishing.
- Anderson, Stephen. 1982. Where is Morphology. *Linguistic Inquiry* 12, 571-612.
- Anderson, Stephen. 1992. *A-Morphous Morphology*. Cambridge, Cambridge Press.
- Bird, Seven and Ewan Klein. 1993. Enriching HPSG Phonology. Research Paper EUCCS/RP-56, University of Edinburgh, Center for Cognitive Science.
- Cho, Jae Ohk and Jerry Morgan. 1987. The Interaction of Syntax and Morphology in Korean VP Coordination. In S. Kuno et al. (eds.),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2, 27-39.
- Cho, Young-mee and Peter Sells. 1994. A Lexical Account of Phrasal Suffixes in Korean. Ms. Stanford University.
- Kathol, Andreas. 1994. On Agreement in HPSG. Ms. Ohio State University.
- Kim, Jong-Bok. 1992. A Constraint-Based Lexical Approach to Korean Verb Inflections. Ms. Stanford University.
- Kim, Yeong-Seok. 1985. *Aspects of Korean Morpholog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Krieger, Hans-Ulrich and John Nerbonne. 1991. Feature Based Inheritance Networks for Computational Lexicons. In Briscoe, Copestake and de Paiva (eds.), *Default Inheritance in Unification Based Approaches to the Lexic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ollard, Carl and Ivan Sag 1987. *Information-Based Syntax and Semantics*. CSLI Lecture Series Notes No 13. Stanford CSLI.
- \_\_\_\_\_. 1994.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nd CSLI Publications.
- Riehemann, Susanne. 1992. Word Formation in Lexical Type Hierarchies: A Case Study of *bar*-Adjectives in German. Ms. University of Tubingen.
- Sells, Peter. 1993. Japanese and Korean Morphology from a Lexical Perspective. Ms. Stanford University.